

#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개념적 분석

이동선\*

|                            |
|----------------------------|
| I. 서론                      |
| II. 군비경쟁의 존재 유무: 기존 논쟁의 한계 |
| III. 군비경쟁의 유형화: 새 접근법      |
| IV. 동아시아에 어떤 군비경쟁이 존재하는가?  |
| V. 결론                      |
| 주제어: 군비경쟁, 군사력, 군사비, 동아시아  |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존재 유무를 둘러싼 학계의 기존 논쟁을 평가하여, 학자들이 군비경쟁의 의미를 제각기 규정함으로써 논쟁이 공전하고 있음을 밝힌다. 둘째, 군비경쟁의 유형화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념정의를 군비경쟁의 개별유형으로 전환한 유형분류체계를 제시한다. 셋째, 이 유형분류체계를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어떤 유형의 군비경쟁이 이 지역에 있고 없는지를 규명한다.

✦ 『국제관계연구』 제22권 제2호 (2017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7.12.22.2.151>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K1709781).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서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군비경쟁이 전쟁의 원인 혹은 전조라는 생각과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sup>1)</sup>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에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아온 문제는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존재 유무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지와 군비경쟁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여러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의 경합은 활발한 논쟁의 모습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에 관한 기존 논쟁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검토해보는 달리 기존 논쟁이 공전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어놓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학자들이 군비경쟁 개념을 각양각색으로 상이하게 정의하기 때문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비평에 그치지 않고, 평가에 기초해 보다 건설적인 논쟁을 위한 새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비경쟁의 유형화가 새 접근법의 핵심이다. 각 개념정의를 개별유형으로 전환하고 통합해서 유형분류체계(typology)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이를 현재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이 지역에 어떤 유형의 군비경쟁이 존재하는지를 구명함으로써 유형분류체계의 분석적 유용성을 시험해볼 것이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군사비를 앞다투어 증액하는 경쟁으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추동하는 장기간에 걸친 빠른 속도의 경쟁이 두드러지는 한편, 일부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벌이는 느린 속도의 경쟁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 군사비경쟁은 참여국들이 온 힘을 쏟지 않는 제한적 경쟁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군사력을 다투어 증강하는 경쟁으로는 해군력 부문에서 양과 질 모든 측면의 경쟁이 현저하며, 중국 근방을 장악하기 위한 전력 부문의 경쟁도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반적 차원에서는 빠른

1) Charles L. Glas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rms Ra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2000).

속도의 군사력경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을 주축으로 한 느린 속도의 경쟁만 나타난다.

## II. 군비경쟁의 존재 유무: 기존 논쟁의 한계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국제정치학계는 열띤 논쟁을 벌여왔다. 동아시아에는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없다는 주장과 군비경쟁이 있다는 반대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sup>2)</sup> 이에 더하여 군비경쟁이 당장은 없지만 생겨나는 중이라거나, 부문별 또는 하위지역별로 군비경쟁의 존재 유무가 달리 나타난다는 등의 절충적인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sup>3)</sup> 이렇듯 다양한 학설의 경합을 보고 있노라면, 진정 건설적인 학술논쟁이 진행되고 학문이 진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 관찰에서 비롯된 착시현상이다.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유

- 
- 2) 군비경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술의 예: Chung Min Lee, *Fault Lines in a Rising Asia*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6), chapter 4; William Boot, "What's Behind ASEAN's Arms Race?" *The Irrawaddy*, Vol. 18, No. 2 (2010). 군비경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저술: David C. Kang, *American Grand Strategy and East Asia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16-30; Adam P. Liff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2014), pp. 52-91; Richard A. Bitzinger, "A New Arms Race? Explaining Recent Southeast Asian Military Acquisition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2, No. 1 (2010).
- 3) 군비경쟁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2014), chapter 10; Tai Ming Cheung, "Racing from Behind: China and the Dynamics of Arms Chases and Races in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Mahnken, Joseph Maiolo, and David Stevenson (eds.), *Arms Races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Nine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특정부문 또는 하위지역에 국한되어 군비경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연구: Geoffrey Till, *Asia's Naval Expansion: An Arms Race in the Making?*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2); Desmond Ball, "Arms Modernization in Asia: An Emerging Complex Arms Race,"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공허한 논쟁에 그쳤다. 학문적 대화 속에서 더 나은 주장들이 속속 등장하며 지식의 진일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논쟁이 공전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쟁점이 모호하다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많은 논쟁참여자들이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군비경쟁이란 단어를 사용했다.<sup>4)</sup> 따라서 동아시아에 무엇이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조차 종종 불분명했다. 둘째, 군비경쟁 개념을 분명히 정의한 학자들도 공유된 쟁점을 형성하지 못했다. 군비경쟁이 있다는 갑의 주장과 군비경쟁이 없다는 을의 주장이 표면적으로 대립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양립할 수 있었다. 갑과 을의 군비경쟁 개념정의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엄격한 개념정의를 적용한 학자들은 군비경쟁이 없다고 판정하기 쉬웠고, 반대로 느슨한 개념정의를 사용한 학자들은 (동일한 관찰에 기초해서도) 군비경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군비경쟁을 동일하게 정의하는 연구자들도 개념을 다른 척도로 측정하곤 했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몇 퍼센트의 연평균 군사비증액이 있어야 군비경쟁으로 간주할지를 서로 달리 정했다. 넷째,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측정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학자마다 달랐다. 어떤 이는 COW 군사비 데이터를, 다른 이는 SIPRI 자료를 사용한다.<sup>5)</sup>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군비경쟁의 의미를 상이하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군비경쟁을 군사력증강으로 정의하는 학파와 군사비증액으로 정의하는 학파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에 따르면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울 때에 군비경쟁이 존재하며, 후자에 따르면 국가들이 앞다투어 군사비를 늘리는 현상이 군비경쟁이다. 이렇듯 상이한 개념정의를 적용하면 동일한 상황을 관찰하고도 다른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군사비 증액 없이 사용효율만을 높여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상황은 전자에게는 군비경쟁이지만 후자에게는 군비경쟁이 아니다. 군비경쟁이 있다는 전자의 주장이 군비경쟁이 없다는 후자

4) Grant T. Hammond, *Plowshares into Swords: Arms Races in International Politics, 1840-1991*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3), p. 37.

5) COW는 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를, SIPRI는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를 지칭한다.

의 주장과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립한다. 군비경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 학파 내에도 다양한 개념정의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설상가상으로 문제를 증폭시킨다.

## 1. 군사력증강으로 정의된 군비경쟁

군비경쟁을 군사력증강으로 정의하는 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헌팅턴은 두 국가(또는 연합)가 상충하는 목적 또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시에 경쟁적으로 군비(armament)를 계속 늘려가는 것을 군비경쟁으로 규정했다.<sup>6)</sup> 군사력증강에는 무기체계 등 군사자원의 질을 높이는 작업과 군사자원의 양을 늘리는 일을 아울러 포함했다. 이와 달리 모겐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군사력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 능가하려는 시도를 군비경쟁으로 보았다.<sup>7)</sup> 헌팅턴의 정의에 군사적 우위달성이라는 군사력증강의 목표를 추가한 셈이다. 부잔과 헤링은 이 정의에 한 가지 요소를 더하고 다른 한 요소를 뺐다.<sup>8)</sup> 국가들이 온 힘을 다해 군사력증강에 매진해야 군비경쟁이며, 반면에 자국의 우위달성은 추구하지 않고 타국의 우위달성을 방지하고자 군사력을 늘려도 군비경쟁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레이는 적대관계를 의식한 채 상대와의 대결에 대비해 군사력을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늘려야 한다는 점을 군비경쟁의 요건으로 적시했다.<sup>9)</sup> 해먼드는 무려 8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군사력증강을 군비경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군비경쟁을 벌이는 두 국가는 서로를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

6) Samuel P. Huntington, "Arms Races: Prerequisites and Results," *Public Policy*, Vol. 8, No. 1 (1958).

7)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93).

8) Barry Buzan and Eric Herring, *The Arms Dynamic in World Politics* (Boulder, CO: Lynne Rienner, 1998).

9) Colin S. Gray, "The Arms Race Phenomenon," *World Politics*, Vol. 24, No. 1 (1971); Andrew T. H. Tan, "The Global Arms Trade,"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p. 9.

10) Hammond (1993).

고, 상대를 의식해 군사·외교적인 계획을 세우며, 공공연한 적개심을 드러낸다. 또한 이들은 행동을 서로 연계하며, 군사력증강 노력을 연평균 8퍼센트 이상 지속적으로 늘리며, 군사력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비경쟁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학자마다 달리 규정한다는 것이다. 군비경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숫자도 다르고, 요건의 성격도 상이하다. 다시 말해, 군비경쟁 개념의 내포가 각양각색이다. 이렇듯 개념들의 내포가 다르면, 그들의 외연도 달라지기 마련이다.<sup>11)</sup> 해먼드의 정의처럼 구성요건이 많아서 군비경쟁 개념의 내포가 크면, 외연이 반대로 작아진다.<sup>12)</sup> 그리고 외연이 작게 정의된 군비경쟁의 사례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먼드의 정의를 적용한 연구자가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자연스럽다.<sup>13)</sup> 반대로 그레이 등의 정의처럼 군비경쟁의 구성요건이 적어서 군비경쟁 개념의 내포가 작으면, 외연이 커진다. 외연이 크게 정의된 군비경쟁의 사례는 비교적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레이와 유사하게 군비경쟁을 정의한 학자가 동아시아 일부 지역과 특정 군사력부문에서 군비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은 놀랍지 않다.<sup>14)</sup>

## 2. 군사비증액으로 정의된 군비경쟁

군비경쟁을 군사비증액으로 정의하는 방식도 다양하다.<sup>15)</sup> 이 학파의 선구자

11) Gary Goertz, *Social Science Concepts: A User's Guid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 No. 4 (1970).

12) 개념이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tructure를 지닌 경우에만 이처럼 내포와 외연 간의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학계에서 통용되는 군비경쟁 개념은 모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Goertz (2005).

13) Bitzinger (2010).

14) Ball (2010).

15) 군비경쟁을 군사비증액과 동일시하는 개념정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비(arms)를 늘리는 경쟁(race)이라는 군비경쟁 본래의 사전적 의미와 동떨어진 점이다. Collins, Oxford, Merriam-Webster 등 권위 있는 영어사전은 arms race의 뜻을 무기(weapons)를 개발·축적하는 경쟁으로

인 윌리스에 따르면, 군비경쟁은 엇비슷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들의 군사적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가속적·비정상적 군사비증액을 지칭한다.<sup>16)</sup> 군사비 총액이 최소 10년에 걸쳐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증가해야 비정상적 증액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디일은 두 국가가 각각 3년 넘게 연평균 8퍼센트 이상 군사비를 늘릴 때 군비경쟁이 일어났다고 판정한다.<sup>17)</sup> 또한 디일은 윌리스처럼 두 국가 중 하나만 비정상적 군사비증액을 한 경우를 군비경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양방 군사비증액만이 진정한 군비경쟁이라는 것이다.<sup>18)</sup> 지블러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군사비를 늘려야만 군비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경쟁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은 두 국가의 동시적인 군사비증액은 디일과 달리 군비경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19)</sup> 또한 지블러는 두 국가가 각기 매년 8퍼센트 이상씩 최소 3년 동안 군사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군비경쟁의 요건도 추가한다.<sup>20)</sup> 여기서 소개한 개념정의 외에도, 군비경쟁을 군사비증액으로 규정하는 여러 방식들이 존재한다.<sup>21)</sup>

이처럼 상이하게 군비경쟁을 규정하다 보니, 학자들이 파악한 군비경쟁의 역

풀이한다. 그런데 무기의 개발-축적은 군사비증액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비 총액을 늘리지 않은 채, 군사비 배분만 변경해 특정상대를 겨냥한 특정무기만 개발-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헨딩턴의 주장대로, 질적 군비경쟁은 군사비 총액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 이처럼 군사비 총액의 증가가 무기의 개발-축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군비경쟁을 군사비증액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16) Michael D. Wallace, "Arms Races and Escalation: Some New Evid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3, No. 1 (1979); Michael D. Wallace, "Some Persisting Finding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2 (1980); Michael D. Wallace, "Armaments and Escalation: Two Competing Hypothes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6, No. 1 (1982). 윌리스는 이런 군비경쟁을 runaway arms race로 명명하고 정상적 군사비증액경쟁(normal arms competition)과 구별했다.

17) Paul F. Diehl, "Arms Races and Escalation: A Closer Look,"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0, No. 3 (1983), p. 208.

18) 디일은 양방 군사비증액을 mutual military buildup으로, 일방 군사비증액을 unilateral buildup으로 명명했다.

19) Douglas M. Gibler, Toby J. Rider and Marc L. Hutchison, "Taking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Conventional Arms Races during Periods of Rivalr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2 (2005), pp. 134-136.

20) Gibler (2005), pp. 137-138.

21) MD Horn, "Arms Race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Ph.D. Thesis. University of Rochester, 1987.

사적 사례들도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한 국가만의 군사비증액도 군비경쟁으로 간주한 윌리스가 군비경쟁으로 지목한 사례는 28개인 반면, 두 국가 모두의 군사비증액만 군비경쟁으로 규정한 디일은 거의 동일한 데이터에서 12개 군비경쟁 사례를 찾아내는 데 그쳤다.<sup>22)</sup> 작은 내포를 가진 윌리스의 군비경쟁 개념은 큰 외연을 갖고, 따라서 많은 사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큰 내포를 지닌 디일의 개념은 작은 외연을 가지므로, 보다 적은 수의 사례만을 담을 수 있다. 지블리의 군비경쟁 개념이 지닌 내포는 디일의 경우보다도 크기에, 그 개념정의에 따라 군비경쟁이라 칭할 수 있는 사례들의 수가 더욱 적을 것이다.

### III. 군비경쟁의 유형화: 새 접근법

군비경쟁의 개념정의가 앞서 기술했듯 제각각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이 존재하느냐는 논제는 공허한 논쟁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학계에서 통용되는 군비경쟁의 정의를 통일할 방도도 없다. 어떤 개념정의가 가장 좋은지에 관해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적 개념이란 본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개념정의인지는 연구목적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sup>23)</sup> 그런데 연구들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장 적합한 개념정의도 다 같지 않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연구는 군비경쟁의 유무라는 해묵은 논제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새 문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 어떤 군비경쟁이 존재하는가가 그러한 새 논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군비경쟁의 정의들 중 하나를 택해서 군비경쟁의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각 정의를 군비경쟁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다른 명칭을 붙이는 편이 낫다.<sup>24)</sup>

22) 윌리스는 COW 데이터의 1816~1965년 기간을, 디일은 1816~1970년 기간을 분석했다.

23) Goertz (2005).

24) Huntington (1958). 해먼드가 군비경쟁 세분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Hammond (1993), p. 51.



예를 들어, 윌리스가 군비경쟁으로 규정한 runaway arms race는 ‘고속 군사비(중액)경쟁’이라 칭하고, 디일이 진정한 군비경쟁이라고 간주한 mutual military buildup은 ‘양방 군사비(중액)경쟁’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또 부잔과 헤링이 말한 온 힘을 쏟는 군비경쟁을 ‘총력 군사력(중강)경쟁’이라 부르고, 모젠소가 말한 타국을 능가하려는 목적의 군비경쟁은 ‘군사력우위경쟁’이라 칭한다. 이렇듯 군비경쟁을 군사력경쟁과 군사비경쟁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에 수식어를 첨가함으로써 군비경쟁을 유형화할 수 있다.<sup>25)</sup>

이처럼 유형화하고 나면, 어떤 군비경쟁이 동아시아에 있고 없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A유형은 없지만, B유형은 있고, C유형은 생겨나는 중이다’와 같은 주장을 펼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이 있다’와 같은 단순한 주장과 달리 현실에 관한 풍성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교한 주장이다. 그러므로 각 유형의 유무를 논제로 설정함으로써 군비경쟁 연구가 진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 1. 군비경쟁 유형화

이 논문에서는 군비경쟁을 하나 이상의 국가가 경쟁의식을 품고 군사력 또는 군사비를 늘리는 현상으로 정의한다.<sup>26)</sup> 이처럼 포괄적으로 정의한 군비경쟁 개념을 다시 군사력을 다투어 증강하는 군사력경쟁과 군사비를 증액하는 군사비경쟁으로 나눈다.<sup>27)</sup> 그리고 군사력경쟁과 군사비경쟁이라는 두 기본유형에 각기 수식어를 붙여 세분화한다.

25) 수식어를 붙여 유형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유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Goertz (2005).

26) Sam Perlo-Freeman, “Arms Race,”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arms-race> (검색일: 2017년 10월 7일).

27) 이것이 해먼드의 유형분류체계에 건주었을 때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다. 해먼드는 군사력경쟁만을 세분하는 데 그쳤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부유형들 중 일방경쟁, 총력경쟁/제한경쟁, 고속경쟁/저속경쟁, 전반적 경쟁, 국지경쟁은 해먼드의 분류체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독창적인 군비경쟁 유형들이다.

### 1) 일방경쟁 및 양방경쟁

두 경쟁국 모두가 군사력을 증강하면 양방 군사력경쟁이라 부른다. 그리고 한 국가만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일방 군사력경쟁이라 명명한다. 마찬가지로 군사비경쟁도 군사비증액에 나선 국가의 수에 따라 양방 군사비경쟁과 일방 군사비경쟁으로 나눈다.

이 유형화에 대해, 한 국가만이 군사력/군사비를 늘리는데 어떻게 ‘경쟁’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sup>28)</sup> 군비경쟁은 본질적으로 경주(race)와 같은데, 상대는 서 있고 혼자서 달리는 상황이 어찌 경주에 해당하느냐는 지적이다. 모두 달려야 경주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경주에 관한 단면적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경주 도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갑자기 재빨리 출발해서 달리는 동안, 을은 머뭇거리며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을이 갑을 따라잡기 위해 가속하고 있는 중에도, 이미 많이 앞서 있는 갑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설 수도 있다. 이처럼 한 주자만 달리고 있는 상황들도 모두 경주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한 국가만 군사력 또는 군사비를 늘리는 현상도 군비경쟁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29)</sup>

### 2) 우위경쟁, 균형경쟁, 만회경쟁

군비경쟁 참여국들의 목표도 분류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sup>30)</sup> 군사력에서 상대를 앞서려하는 경우를 군사력우위경쟁으로, 상대에 뒤처지지 않으려 하는 경우를 군사력균형경쟁으로, 단시간에 동등해지는 것이 당면목표가 아닐지라도 열세를 가급적 줄여보고자 하는 경우는 군사력만회경쟁으로 명명한다.<sup>31)</sup>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 군사비경쟁도 군사비우위경쟁, 군사비균형경쟁, 군사비만회경

28) 일방적인 노력은 군비경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 Buzan and Herring (1998), pp. 78, 80; Hammond (1993), pp. 39-43; Diehl (1983).

29) 이런 일방 군사비경쟁의 실례를 들면, 군비경쟁이 성행했던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군사비증액에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군사력균형을 살피며 대응여부와 정도를 정했다. 상대가 군사비를 늘리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에게 군사력우위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굳이 동일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Michael Don Ward, "Differential Paths to Parity: A Study of the Contemporary Arms R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 2 (1984).

30) Hammond (1993), p. 46.

31) 군사력만회경쟁은 arms chasing 또는 rearmament race 등 개념과 유사하다. Cheung (2016); Hammond (1993), pp. 9-10.

쟁으로 분류한다.

### 3) 총력경쟁 및 제한경쟁

참여국이 가용자원의 얼마만큼을 경쟁에 투입하는가도 군비경쟁의 분류기준이 될 수 있다. 온 힘을 다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총력 군사력경쟁과 온 힘을 다하지 않는 제한적 군사력경쟁으로 나눈다. 마찬가지로 군사비경쟁도 총력 군사비경쟁과 제한적 군사비경쟁으로 분류한다.

### 4) 고속 군사비경쟁 및 저속 군사비경쟁

경쟁국들이 군사비를 늘려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군사비경쟁을 세분할 수 있다. 10년간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또는 3년간 연평균 8퍼센트의 군사비증액이 지속되는 경우를 고속 군사비경쟁으로 간주한다. 10년간 연평균 10퍼센트 증액은 장기고속 경쟁으로 3년간 연평균 8퍼센트 증액은 단기고속 경쟁으로 다시 나눈다.<sup>32)</sup> 증액수준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는 저속 군사비경쟁으로 명명한다.

### 5) 부문별 군사력경쟁 및 전반적 군사력경쟁

몇몇 특정부문에 국한된 경쟁적 군사력증강을 부문별 군사력경쟁이라 칭한다. 부문별 군사력경쟁은 다시 경쟁부문을 밝혀 세분화할 수 있다. 육군력 경쟁, 해군력 경쟁, 공군력 경쟁 등 군종별로 나눌 수도 있고, 공격력 경쟁 또는 방어력 경쟁처럼 기능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한 임무에 따라 지상전력 경쟁, 해전력 경쟁, 항공전력 경쟁, 핵전력 경쟁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sup>33)</sup> 경쟁종목인 무기체계에 따라서도, 탄도미사일 경쟁, 잠수함 경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 10년간 연평균 10퍼센트 증액은 윌리스가 세운 관정기준이고, 3년간 연평균 8퍼센트 증액은 다이얼이 정한 기준이다. Wallace (1979); Diehl (1983).

33) 해전력은 해전(海戰)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자원을 통칭하며 해군과 육군-공군 지원부대를 아우른다. 항공전력은 항공전(航空戰)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자원을 의미하며 공군과 육군-해군 지원부대를 포함한다. 지상전력은 지상전(地上戰) 수행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자원을 일컬으며 지상군과 해군-공군 지원부대를 포함한다. 지상전력은 미어샤이머가 정의한 land power에 해당한다. 지상전력은 적 지상군 격파와 영토 점령을, 해전력은 적 해군 격파와 해상봉쇄를, 항공전력은 적 공군 격파와 전략폭격을 각각 주 임무로 한다. 핵전력은 핵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군사자원을 의미하며 보복타격과 적 핵전력 무력화를 임무로 한다. 핵무기와 운반수단이 핵전력의 근간을 이루며 재래식 정밀타격능력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이 보조한다. Mearsheimer (2014).

이렇듯 몇몇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군사력증강은 전반적 군사력경쟁이라 칭해 구별한다.<sup>34)</sup>

### 6) 질적 군사력경쟁 및 양적 군사력경쟁

질적 군사력경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군사자원의 질적 향상을 다투어 추구한다. 예를 들자면, 기존무기를 얼마나 신속히 신종, 신형무기로 교체하느냐를 겨룬다.<sup>35)</sup> 반면에 양적 군사력경쟁에서는 군사자원의 수량만을 경쟁적으로 늘린다.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더 많이 갖추려 노력하는 것이다.

### 7) 국지 군사력경쟁, 지역 군사력경쟁, 세계 군사력경쟁

군사력경쟁이 벌어지는 지리적 범위가 분류기준이 될 수도 있다.<sup>36)</sup>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세계 군사력경쟁, 동아시아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역 군사력경쟁,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의 일부에 국한된 국지 군사력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일례로 두 국가가 특정지역에 군대를 다투어 배치한다면, 지역 군사력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 8) 대칭군사력경쟁 및 비대칭군사력경쟁

경쟁국들이 증강하는 군사력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군사력경쟁을 구분할 수 있다.<sup>37)</sup> 경쟁적으로 동일한 군사자원을 늘리는 현상을 대칭군사력경쟁이라 부른다.<sup>38)</sup> 갑과 을이 항공모함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일례이다. 이와 구별해, 상이한 군사자원을 다투어 늘리는 일을 비대칭군사력경쟁이라 칭한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갑에 대항해서 을이 대잠전에 사용할 구축함을 구매하는 것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34) Hammond (1993), p. 46.

35) Huntington (1958), p. 76; Hammond (1993), p. 48.

36) Cheung (2016), p. 249; Hammond (1993), p. 46.

37) Huntington (1958), p. 52.

38) Hammond (1993), p. 46, 48, 51.

## IV. 동아시아에 어떤 군비경쟁이 존재하는가?

### 1. 군사비경쟁

<표 1>에 나타나듯,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10퍼센트를 상회하는 장기고속 군사비증액을 해온 국가는 중국뿐이다. 중국의 군사비는 이 기간에 2.17배로 늘어났다. 러시아, 한국, 대만, 일본도 군사비를 늘렸지만 저속 증액에 머물렀고, 미국의 군사비 총액은 감소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장기고속 군사비경쟁은 일방적인 성격을 띠며, 중국이 경쟁국인 미국, 일본, 대만에 대해 벌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는 아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러시아와는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들 양자관계에 관해서는 군비경쟁을 논하기 어렵다.<sup>39)</sup> 반면에 양방 장기고속경쟁은 찾아볼 수 없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8퍼센트를 넘는 단기고속 군사비증

〈표 1〉 동아시아 주요국의 군사비 변동

|              |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 한국   | 대만   |
|--------------|------|------|------|------|------|------|
| 10년 전 대비 군사비 | 0.95 | 2.17 | 1.87 | 1.02 | 1.35 | 1.09 |
| 3년 전 대비 군사비  | 0.93 | 1.22 | 1.22 | 1.02 | 1.10 | 1.06 |

\* 10년 전 대비 군사비는 2016년 군사비를 2007년 군사비로 나눈 값이며, 3년 전 대비 군사비는 2016년 군사비를 2013년 군사비로 나눈 값이다.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39) You Ji, “Friends in Need or Comrades in Arms: The Dilemma in the Sino-Russian Weapons Business,”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1990년대 이래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은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힘입은 바가 컸다. 러시아는 중국이 생산할 수 없었던 (Su-27 전투기, Kilo급 잠수함, Sovremenny급 구축함을 비롯한) 신형무기들의 유일한 공급자였다.

액을 단행한 국가는 없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일방, 양방을 막론하고 단기고 속 군사비경쟁은 동아시아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역내 군사비증액을 주도해 온 중국의 군사비증액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근래의 추세를 반영한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은 2014년 이래 계속 둔화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한 자릿수(7.6퍼센트)로 떨어졌다.<sup>40)</sup>

한편 동아시아에 장기저속 군사비경쟁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판정할 간접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한국의 군사비증액 수준은 전 세계 평균(14.4퍼센트 증가)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sup>41)</sup> 러시아의 군사비증액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군사비증액은 주로 북한의 핵개발을 의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일방 장기저속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도 북한과 장기저속 경쟁을 치르고 있다고 조심스레 추정할 수 있다.<sup>42)</sup> 다만 북한의 군사비에 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장기저속 경쟁이 일방인지 양방인지는 가늠할 방도가 없다.

역내 군사비경쟁은 대부분 제한적 경쟁이다. <표 2>에 나타나듯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군사비는 GDP의 1.0~5.3퍼센트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온 힘을 다해 군사비를 증액하는 총력 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표 2〉 동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군사비

|                     |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 한국  | 대만  | 북한 |
|---------------------|-----|-----|-----|-----|-----|-----|----|
| 2016년 GDP 대비 군사비(%) | 3.3 | 1.9 | 5.3 | 1.0 | 2.7 | 1.9 | 모름 |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40) 2014년 군사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2퍼센트, 2015년 증가율은 10.1퍼센트였다. 이동률, “중국 국방비 증가의 현황과 함의,”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7), pp. 2-3.

41) 러시아의 군사비증액 수준은 아시아-오세아니아 평균(64퍼센트 증가)도 넘어선다.

42) 한국의 군사비증액에만 기초해 남북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의 군사비증액이 장병의 (급여인상과 복지확대 등) 처우 관련 지출의 증가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획득과 관련한 투자는 비교적 천천히 늘어났다. Joachim Hofbauer, “Not an Arms Race: Parsing Asia’s Defense Spending,” *World Politics Review*, November 7, 2012.

군사비 비중이 여타 국가들보다 현저히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통계를 입수할 수 없어 총력 경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 2. 군사력경쟁

### 1) 전반적 군사력경쟁

전반적 군사력증강을 탐지하는 일은 어렵다. 군사비 총액은 SIPRI, IISS 등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수치를 활용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sup>43)</sup> 일국의 군사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동일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총액을 산출하기 용이하다. 반면에 군사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해서 하나의 단위로 환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력전차 한 대를 1로 놓았을 때 항공모함 한 척에는 어떤 값을 부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총체적 군사력을 하나의 수치로 표기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는 없다. Global Firepower가 그러한 지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술적 가치는 미미하다. 이처럼 총체적 군사력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반적 군사력증강이 일어났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COW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군사력 척도인 병력 총수는 인적자원이라는 군사력의 한 요소만을 측정하게 해줄 뿐이다.<sup>44)</sup> 그러나 병력 총수는 양적 군사력 전반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는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는다.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사자산의 수량이 늘면 대개 그것을 운용하는 병력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이다.<sup>45)</sup>

<표 3>이 보여주듯,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0퍼센트를 상회하는 장기고속 병력증강을 한 국가는 동아시아에 없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개입을 줄인 미국과 완전한 모병제로 이행해온 러시아는 오히려 병력

43) IISS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를 일컫는다.

44) 국력지수인 CINC(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에는 인구, 도시거주인구, 철강생산량, 에너지소비량, 군사비, 병력숫자가 포함된다.

45) 반면에 군사자산의 질이 높아지면 운용병력이 줄어들기도 한다. 첨단무기의 자동화 및 무인화 추세에 따른 병력소요의 감소가 일례이다.

〈표 3〉 동아시아 주요국의 병력 총수 변동

|                   |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 한국   | 대만   | 북한   |
|-------------------|------|------|------|------|------|------|------|
| 10년 전 대비<br>병력 총수 | 0.92 | 1.03 | 0.78 | 1.02 | 0.91 | 0.74 | 1.08 |
| 3년 전 대비<br>병력 총수  | 0.91 | 1.02 | 0.94 | 1    | 0.96 | 0.74 | 1    |

\* 10년 전 대비 병력 총수는 2016년 병력 총수를 2007년 병력 총수로 나눈 값이며, 3년 전 대비 병력 총수는 2016년 병력 총수를 2013년 병력 총수로 나눈 값이다. 상비군만 집계에 포함한다.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7, 2013, 2016)

수를 줄였다.<sup>46)</sup>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8퍼센트를 넘는 단기고속 병력증강을 한 국가도 없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일방/양방을 막론하고 동아시아에 전반적인 양적 고속 군사력경쟁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양적 군사력 전반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병력 총수가 지닌 제한적 유용성 때문에, 전반적 양적 군사력경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2016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및 3년 기간 동안에 병력 총수를 늘려왔다. 이 사실에 비추어, 중국이 경쟁국인 미국과 대만에 대해 양적 저속 군사력경쟁을 장·단기적으로 벌여왔다고 조심스레 추정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이 동기간에 걸쳐 병력 총수를 감축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방 군사력경쟁이었다. 양자 군사력분포를 감안하면, 우세한 미국에 대해 중국이 수행한 일방경쟁은 만회전쟁일 개연성이 크다.<sup>47)</sup> 반면에 열세한 대만을 겨냥한 일방경쟁은 우위전쟁일 공산이 크다. 또한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병력 총수를 늘려온 경쟁국 일본과 양적 양방저속 군사력경쟁을 전반적으로 벌여왔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sup>48)</sup>

46) Alexander A. Pikayev, "Defense Spending and Procurement in Post-Communist Russia,"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p. 161.

47) 츠영도 중국이 arms chasing을 펼치고 있다는 유사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Cheung (2016).

48) 일본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Brad Williams, "Japan's Arms Procurement after the Cold War,"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pp. 83-85.



병력 총수라는 척도의 한계 때문에 추론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2007~2016년 기간에 중국은 병력수준과 병력증강속도에서 두루 일본을 능가했다. 이 사실에 비추어, 중국과 일본은 각각 우위경쟁과 균형경쟁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은 더욱 앞서려 노력하고, 일본은 더 이상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다.

## 2) 부문별 군사력경쟁

동아시아에서는 전반적 군사력경쟁보다 부문별 경쟁이 더 현저하다. 특히 해군력경쟁이 두드러진다. 동아시아의 해군들이 단순히 노후장비를 동급의 새 장비로 교체하는 현대화 작업에 머물지 않고 서로를 의식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sup>49)</sup> 일본은 해군력을 기르는 중국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항해 이지스 구축함을 늘려왔다.<sup>50)</sup> 대만도 중국의 해군력증강을 상쇄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으로 수상함과 잠수함 등을 늘려왔다.<sup>51)</sup> 한국도 북한과 일본을 염두에 두며 이지스함, 대형상륙함, 잠수함 등을 건조해왔다. 중국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sup>52)</sup>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안전투함, 줌왈트급 스텔스 구축함, 포드급 항공모함,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등 신형무기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sup>53)</sup>

이러한 해군력증강은 양적 경쟁뿐 아니라 질적 경쟁의 요소도 포함한다. 기존 무기의 수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신종/신형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국의 항공모함 신규획득과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및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최초로 장착한 포드급 항공모함 개발이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도 질적 경쟁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증강은 비대칭 경쟁에서 대칭적 경쟁으로 점차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항해 대함미사일, 잠수함, 고속공격정 확충으로 맞서오던 중국이 항공모함을 갖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49) Till (2012); Ball (2010), pp. 42, 49.

50) Lee (2016), p. 211; Ball (2010), p. 43; Williams (2010), p. 85.

51) Ball (2010), p. 44.

52) 이동률 (2017), p. 7; You (2010).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진수했다.

53) Till (2012).

이 모습이 대칭화 추세를 분명히 드러내는 예이다.

미중 해군력경쟁은 지리적 범위에서 아직 세계경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중경쟁은 거의 전적으로 아시아지역에 한정된다. 아시아에서도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등지에서 벌이는 국지경쟁이 각별히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경쟁은 특정 군종이나 무기체계에 국한되지 않은 합동 전력(임무수행능력)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크게 보면, 미중 군사력경쟁에서는 공해전(Air-Sea Battle)을 치르는 미국의 전력과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임무를 수행하는 중국 전력의 경합이 두드러진다.<sup>54)</sup> 중국은 주변지역에 미군이 진입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을 확충해가고 있다.<sup>55)</sup> 미 해공군이 중국 근방에서 작전을 벌이기 어렵도록 고속공격정, 기뢰, 대공미사일·레이더, 전투기 등을 늘리고 있으며, 보다 먼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대함미사일, 잠수함, 위성파괴무기, 항공모함 등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의 공해전 전력은 대잠전력, 미사일 방어체계, 비행장 등 적 기지에 대한 원거리타격능력, 기뢰제거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6)</sup>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벌이는 또 다른 전력경쟁으로는 미사일전력과 미사일방어능력 간 경합을 들 수 있다. 미사일전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의 일환으로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으며, 북한도 핵무기 운반수단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미일은 정밀타격능력 확보에 더해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했으며, 일본은 지상배치 PAC-3, 이지스함 탑재 SM-3, 첨단 레이더 및 위성 등으로 이루어진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sup>57)</sup> 한국도 PAC-2 배치와 지대공미사일 개발 등이 주축을 이루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에 나서고 있다.

54) Geunwook Lee, "A Spear and a Shield: Dilemmas of the American Strategy in 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2 (2013).

55) Till (2012), p. 68.

56) Till (2012), p. 82.

57) Williams (2010), p. 85.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존재 유무를 둘러싼 학계의 기존 논쟁을 평가해보았다. 학자들이 군비경쟁의 의미를 제각기 규정함으로써 논쟁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진단결과이다. 이 판단에 착안하여 진일보한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각각의 개념정의를 군비경쟁의 개별유형으로 만들어 유형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현재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어떤 유형의 군비경쟁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동아시아의 군사비경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일방 장기고속 군사비증액이 두드러지며, 러시아와 한국이 미국과 북한에 대해 각기 벌이는 장기저속 군사비경쟁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들 군사비경쟁은 제한경쟁에 머물고 있으며, 단기고속 군사비경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반적 군사력경쟁은 동아시아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양적 고속 군사력경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을 주축으로 한 양적 저속 군사력경쟁만 나타날 뿐이다. 반면에 부문별 군사력경쟁이 두드러진다. 양적·질적 해군력경쟁이 나타나며, 미국의 공해전 수행능력과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력 간의 경합도 현저하다. 그리고 이러한 미중 전력경쟁은 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중국 근방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중 군사력경쟁은 점차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기한 군비경쟁 패턴이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은 지면 제약 때문에 후속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연구수행 중에 얻은 정보와 아이디어에 기초해 간단한 시론(試論)만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형분류체계를 적용해 파악한 패턴을 설명하는 작업이 군비경쟁 연구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중국이 동아시아 주요국가들 중 홀로 군사비를 고속 증액하는 현상은 군사력의 비대칭성과 지리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경계하는 중국은 군사력 격차를 줄이고자 군사비를 빠른 속도로 증액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계하지만 고속 군사비증액으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군사력 및 군사비 우위가 현저하므로 군사비를 빨리 늘리지 않아도 우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보다 약한 일본과 대만도 군사비를 급하게 늘릴 필요 없다. 중국보다 강한 미국의 군사지

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비해 해공군력이 크게 열세인 중국은 해양국인 미국, 일본, 대만에게 아직 치명적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사비경쟁이 제한적 성격을 띠는 것도 군사적 비대칭성과 지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중 군사력 특히 해공군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 단시일 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은 장거리경주를 계획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필수요건인 경제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전면적 군사비증액을 마다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중이 장거리경주를 벌이고 있음을 알고 있는 미국도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중국을 주축으로 한 전반적 군사력경쟁이 저속 경쟁에 그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군사력경쟁이 중국 근방의 하늘과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것도 군사적 비대칭성과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연안국인 중국과 해양국인 미국이 양국 사이에 놓인 연해지역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일은 자연스럽다. 또한 연안국 중국이 지역최강국이자 해양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증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sup>58)</sup>

58) 러시아가 미국보다 강하다면 중국은 내륙국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육군력 증강에 집중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동률. “중국 국방비 증가의 현황과 함의.”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7).
- Ball, Desmond. “Arms Modernization in Asia: An Emerging Complex Arms Race.”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 Bitzinger, Richard A. “A New Arms Race? Explaining Recent Southeast Asian Military Acquisition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2, No. 1 (2010).
- Boot, William. “What’s Behind ASEAN’s Arms Race?” *The Irrawaddy*, Vol. 18, No. 2 (2010).
- Buzan, Barry, and Eric Herring. *The Arms Dynamic in World Politics* (Boulder, CO: Lynne Rienner, 1998).
- Cheung, Tai Ming. “Racing from Behind: China and the Dynamics of Arms Chases and Races in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Mahnken, Joseph Maiolo and David Stevenson (eds.). *Arms Races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Nine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Diehl, Paul F. “Arms Races and Escalation: A Closer Look.”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0, No. 3 (1983).
- Gibler, Douglas M., Toby J. Rider, and Marc L. Hutchison. “Taking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Conventional Arms Races during Periods of Rivalr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2 (2005).
- Glaser, Charles L.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rms Ra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2000).
- Goertz, Gary. *Social Science Concepts: A User’s Guid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Gray, Colin S. “The Arms Race Phenomenon.” *World Politics*, Vol. 24, No. 1 (1971).
- Hammond, Grant T. *Plowshares into Swords: Arms Races in International Politics, 1840-1991*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3).
- Hofbauer, Joachim. “Not an Arms Race: Parsing Asia’s Defense Spending.” *World Politics Review* (November 7, 2012).
- Horn MD. “Arms Race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Ph.D. Thesis. University of Rochester, 1987.

- Huntington, Samuel P. "Arms Races: Prerequisites and Results." *Public Policy*, Vol. 8, No. 1 (1958).
- IISS. *Military Balance*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7, 2013, 2016).
- Kang, David C. *American Grand Strategy and East Asia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Lee, Chung Min. *Fault Lines in a Rising Asia*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6).
- Lee, Geunwook. "A Spear and a Shield: Dilemmas of the American Strategy in 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2 (2013).
- Liff, Adam P.,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2014).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2014).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93).
- Pikayev, Alexander A. "Defense Spending and Procurement in Post-Communist Russia."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 Sartori, Giovann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 No. 4 (1970).
- Tan, Andrew T. H. "The Global Arms Trade."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 Till, Geoffrey. *Asia's Naval Expansion: An Arms Race in the Making?*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2).
- Wallace, Michael D. "Arms Races and Escalation: Some New Evid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3, No. 1 (1979).
- \_\_\_\_\_. "Some Persisting Finding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2 (1980).
- \_\_\_\_\_. "Armaments and Escalation: Two Competing Hypothes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6, No. 1 (1982).
- Ward, Michael Don. "Differential Paths to Parity: A Study of the Contemporary Arms R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 2 (1984).
- Williams, Brad. "Japan's Arms Procurement after the Cold War."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You, Ji. “Friends in Need or Comrades in Arms: The Dilemma in the Sino-Russian Weapons Business.” In Andrew T. H. Tan (ed.). *The Global Arms Trade: A Handbook* (London: Routledge, 2010).

〈인터넷 자료〉

Perlo-Freeman, Sam. “Arms Race.”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arms-race> (검색일: 2017년 10월 7일).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검색일: 2017년 10월 7일).

[ABSTRACT]

## **Arms Races in East Asia**

### **A Conceptual Analysis**

*Dong Sun Lee* |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arms races in East Asia by performing three tasks. First, it assesses the ongoing debate on whether there exists an arms race in East Asia, and thereby reveals that the debate fails to move forward, since scholars define the concept of arms race in varying ways. The second task is to propose a novel approach of developing a typology that turns each conceptual definition into a distinct type of arms race. Third, the article applies the typology to contemporary East Asia, and investigates which types of arms race exist or not in the region.

---

**Keyword:** Arms Race, Military Power, Military Expenditure, East Asia

|                                                             |
|-------------------------------------------------------------|
| 투고일: 2017년 10월 10일, 심사일: 2017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1일 |
|-------------------------------------------------------------|